

사설

어이없는 조계종 종회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단이라는 조계종이 과연 우리 불자들에게도 대표적인 종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좀 성급할지는 몰라도, 이번 조계종 147회 임시중앙총회가 안건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종회가 무엇인가? 원로회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 아닌가? 원로회의가 종회라는 특수성에 바탕하여 원로 대덕 스님들의 뜻을 모으는 의결기관이라면 종회는 그야말로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의 뜻을 수렴하여 조계종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적 의결기관이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 근본적인 구성체제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수없이 있어 왔다. 출가자만으로, 그것도 거의 비구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종회가 과연 조계종의 여법한 대외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는지는 문제는 여전히 조계종 종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나마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면 그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조계종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가? 총무원 일원 체제로 운영되어도 잘 될

수 있을 만큼 화합된 종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문제가 산적한 시기에 그 책임을 짊어지고 종회를 유회시킨 책임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모든 종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부처님앞에 그리고 모든 종도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파행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안건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의를 애초부터 막아버린 종회의장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종회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종회의 성격에 전혀 상반되게, 한 개인의 판단으로써 종회 자체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한 일은 조계종 종회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이다. 적절한 절차도 관행도 없는 것이 조계종 종회라는 것을 대내외로 홍보한 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과연 종회는 조계종 종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지, 또 밖에서 조계종과 불교를 보는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또다시 종회 해산론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종도의 뜻을 모아 조계종의 큰 방향을 결정해야 할 종회의 이러한 파행이 조계종 종단 자체, 나아가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불자들이와 국민들의 등돌림으로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아니한가?

각화사 인근 개발 안된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과 이러한 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및 정신문화의 의지처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현실을 볼 때, 미래사회의 인간은 어디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세계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한민족의 문화에 대해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과시행정으로 전통문화를 마구잡이로 취급하고 훼손하려는 작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불교의 찬란한 문화를 제외한다면 한국은 세계의 야만민족이 될 정도로 불교문화의 비중은 막대하다. 옛날 우리의 역사를 보관해 왔던 사고지(史蹟地)를 복원하여 조상의 역사 보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건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와 지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천년 동안 국민 정신문화의 원천이 되고 전통 정신문화의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의 참선수행 도량을 훼손하고 있다면 천부담 만부담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경상북도 봉화 각화사는 신라 때 원효 성사께서 창건하셨고, 참선수행하는 납자들에게는 각화사에서 반드시 한철이라도 나뉘어야 한다는 영원을 가진 유서깊은 수행 도량이다. 그런데 정부와 도와 군이 각화사 바로 뒤 800m 지점에 있는 사고지를 복원·개발하여 관광지로 삼겠다는 발상은 전통 정신문화를 세속화로 개부수는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하며 민족문화를 보존·향상시키겠다는 구호만 내세우면서 정작 이처럼 유서 깊은 국민 정신문화의 본산을 훼손하겠다는 의도와 발상은 불교의 탄압이었던 국민 정신문화의 파괴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침 '전국 선원 수화회'에서 "수행도량을 관광위락단지로 내줄 수 없다"고 나섰다고 하니, 순교정신으로 천년 수행도량을 지키겠다는 수행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민족의 정신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청정 수행도량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독자의 소리

사찰 관람료 인상 최선인가 불교청소년협회 창립 '환영'

최근 사찰관람료가 12월부터 최고 30%까지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북한 사찰 복원기금 마련, 물가와 인건비 및 관리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관람료 인상이 최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친구들과 함께 한 사찰을 방문했을 때, 문화제가 꽤 많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안내 리플렛 하나 찾기가 어려웠다. 친구들은 사찰 이곳저곳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나타냈지만 마땅히 설명을 들을 곳이 없었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씩 둘러보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 웬지 허전했다. 불자가 아니라면 아마 본전 생각이 날만 했다. 관람료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관람객들이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다. (배혜정·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전리인: aum ·이메일: 34713

조계종 산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 이어 진각종에 '비로자나 청소년협회'가 창립됐다는 반가운 일이다.

청소년 포교는 이제 교계의 개별적인 수준에서 비라볼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합집합'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두 번, 세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 한국불교의 내일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청소년협회의 분명한 목표가 '21세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이 아니라 '청소년 포교 조직망이 스스로 자생되어 확산될 수 있는 조직체계의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능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준비된 길을 열어가야 될 것이다.
(우성자·선생님BANK 스테디 매니저)

최근 김용욱 선생의 명강의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노장사상은, 그동안 비과학적이고, 뒤떨어진 사상으로 잘못 인식돼 온 동양 사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마치 불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비단 노장 사상 뿐이랴? 근 십 수년 우리나라 독서계를 강타하여 불경 250만부의 독서인구를 확보한 크리시나무리티, 라즈니쉬 계열의 <깨어서 지켜 보라>는 힌두이즘, 또 <단학(丹學)>이니 <기(氣)수련> 등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교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제악(諸惡)은 막작(莫作)하고 중생(衆善)은 봉행(奉行)해서 깨달음에만 이르면 다 불교

노장사상-힌두이즘 불교와 동일시 말자

목소리



김희종 바른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 라는 폭넓은 논리에 의해, 이러한 노장사상이나 힌두이즘, 단학수련등이 불교와 뚜렷하게 차별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불법의 기준에 매우 까다로워야 할 불교학자들마저 노장사상의 강의 열풍에 굴복한 듯 '불교와 도가는 사유경향에 있어 일치하고, 큰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몰러서는 경향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두루물살하고 쫓대 없는 가르침으로 오해를 받는 불교의 현실에 대해, 불법의 올바른 잣대를 가지는 것은 새 천년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불교계의 과제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내가 깨달은 불법은 무실무허(無實無虛)나라(如來所得阿耨多羅三三菩提 是於中 無實無虛)'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러한 불법과 사비불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한다. 즉, 불법이란 무실이고 무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선이 불법일까? 혼동선수도 참선하고 신부나 목사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참선한다. 그러한 참선은 불법이 아니다. 부처님을 지향하고 공경하는 참선이라야 참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깨어서 마음을 지켜 보라'는 힌두이즘과 '무위 자연'의 노장사상은, 무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불법인 듯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불법이 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위자연의 세상이야 하며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자리 잡아야 한다. 바른법으로 쫓대를 세워 사비불법에 유혹 없이 즐겁게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불법의 시대인 21세기를 준비하는 참 대지의 사명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비구니스님 법문도 신길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는 미국 뉴욕의 독자입니다. 최근 현대불교신문 '이렇게 들었다' 코너에서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은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대살차니건지소설경>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이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크스님'과의 대화'란에 비구니 스님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에 비구, 비구니 스님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수행하고 있고, 또 도를 깨친 비구니 스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성내·미국 뉴욕)



독자사진

갑갑한 부처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에 가면 고려 전기의 불상인 미륵석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160호)을 만날 수 있다. 2년전 전각이 세워져 보존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호각은 석물의 크기와 참배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지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발걸음을 올려야 겨우 불상을 볼 수 있고, 갑갑할 만큼 비좁다.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행정처리와 문화재 보호대책이 아쉽다.
(이규인·석물선암회 간사)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지난 20일 신협사건과 관련한 교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주지직 사퇴여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홍스님은 "신협사건은 신협 이사장으로서 책임질 일이며, 조계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도들이 원한다면 사퇴할 것이며, 이미 주지 자리에는 마음을 비웠다"고 여론을 납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사퇴하겠다는 것이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인지 듣는 사람으로서의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지금 당장 주지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건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스님의 말을 고려하면 사건해결과 사퇴 두 가지 문제에 대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1부 기자>

선택의 기로

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신협 사건이후 교계 내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저런 사건은 많았으나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불교계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홍스님의 사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

지홍스님은 실천승가회에서 활동을 했고, 조계사 주지를 맡으면서 사찰 재정을 공개하는 등 신협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교계에서 깨끗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진 스님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본의 아닌 사건으로 물러나는 것은 아깝

다는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홍스님은 "종단사태 이후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하고 조계사와 신협을 꾸려가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해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스님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번 신협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계사 신협이 다시 정상화될 것인지, 아니면 파산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인지는 지금로서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당장의 사퇴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퇴하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사퇴하든, 아니면 사퇴하지 않든 간에 그 선택은 지홍스님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해 지홍스님은 불교계와 사부대중에게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원 모집

새천년 한국 전통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위한 길라잡이로 거듭날 <재>선학원에서 불교개혁 마인드를 가진 심심있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 ▶ 모집부서 : 사무행정
- ▶ 인원 : 1명 나이, 성별 제한없음
- ▶ 특기사항 : 컴퓨터 능숙자 우대
- ▶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 전형방법 : 1차 서류면접
2차 면접(후추 개별통보)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2차 면접시 지참)
- ▶ 접수방법 : E-mail(jaedan@nawnuri.net)
FAX, 우편
2000년 10월 7일
- ▶ 서류마감 : TEL. 02)734-9554 ~ 6
- ▶ 문의 : FAX. 02)734-3410

재단 선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제5기 불심호스피스·간병봉사자 신입생 모집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심 호스피스 및 간병봉사자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식 및 간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내용

- 마음, 만 생명의 근원(마음개방)
- 인간의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산모간호와 애기 돌보기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말기환자간호 및 통증관리
- 기초간호 실습
- 만성질환과 간호
- 호스피스 역사와 철학
- 생을 초월한 동반자
-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 건강증진법
- 음악과 건강
-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 경력 이론 및 맞사지
- 한의학 이론과 한방간호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3회
- 병원권역 및 실습
- 법문 : 스님 법문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개강일 :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강의시간 : 2000년 9월 29일-12월 19일
강의시간 : 매주 화,금 (오후 2-5시)

수강료 : 15만원 (교재비/등록비 포함/분납가능)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장 혜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조량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문의 및 접수
051) 462-5670